

## 구하 독립운동의 자료, 개요와 성격

김광식\*

• 목 차 •

- I. 서언
- II. 불교계 항일, 친일의 논란
- III. 구하의 독립운동 자료
- IV. 구하의 독립운동 자료, 대중화
- V. 결어

---

\* 동국대학교 특임교수.

© 『大覺思想』 제37집 (2022년 6월), pp.9-42.

## 한글요약

본 고찰은 통도사의 고승인 구하의 독립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구하는 근현대기 통도사를 대표하는 고승이다. 그는 중앙 불교 교단에서도 총무원장, 중앙학림 학장, 조계종 고문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의 항일, 친일에 대한 논란이 1920년대 중반부터 있었다. 그래서 이 글에는 다음과 같은 초점을 갖고 구하의 독립운동의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했다.

첫째, 한국 현대사에서 불교 친일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개요를 정리하였다. 그래서 그 관련 인물들의 논란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구하 독립운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는 1951년과 1952년에 작성된 문건이다. 셋째, 구하 독립운동의 자료가 대중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즉 그 자료들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자료집에 수록되고, 언론에 발표되었는지를 유의했다. 넷째, 구하가 친일파라는 혐의에서 극복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통도사에서 구하를 친일파로 선정된 것에서 구해내기 위한 노력을 정리하였다.

이상과 같이 서술된 이 글이 근현대기 통도사, 구하의 생애와 독립운동, 불교계 항일과 친일의 문제 등에 활용되길 바란다.

## 주제어

구하, 통도사, 불교의 친일, 친일파, 불교의 항일운동, 임시정부 지원, 조계종

## 1. 서언

한국 근대기 불교는 전통적인 불교를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근대의 정신문화에 부합하는 불교로 갈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내적 갈등을 거쳤다. 때문에 그 역사에는 전통불교의 수호와 개혁, 승려 중심의 불교와 대중 중심의 불교, 계율의 수호와 변화 등 극단적인 대립의 노선이 있었다. 또한 그 역사의 저변에는 서양의 문명 및 종교의 유입, 일제 침략 및 일본불교의 유입 등에 대응을 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도 있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승려로 활동을 하였던 수많은 인물들은 심각한 고민을 하였을 것이다. 자신의 행보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고뇌를 하였고, 비판을 받으면서 역사적인 결단을 하였다. 특히 국권 회복, 독립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현실이었기에 승려들은 항일노선과 친일의 노선을 선택해야만 되었다. 제3의 길인 회색의 노선을 걸어간 승려가 대부분이었지만 불교계의 지도자와 본산 주지에게는 많은 고뇌가 수반되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본 고찰에서 다루는 통도사의 고승인 九河(1872~1965)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흥미로운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심화되지 않았다. 구하는 일제하 불교에서 통도사 주지, 30본산 연합사무소 위원장, 중앙학림 학장, 조계종 종무고문<sup>1)</sup> 등을 역임한 근대불교의 주역이다. 그는 해방 이후에도 조계종단 총무원장, 통도사 큰스님으로 많은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행보를 했던 구하는 일제하에서는 독립운동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민족운동의 노선을 걸어갔다. 그러나 그는 불교계 지도자이었기에 일제 당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표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구하의 행보를 의심스러운 시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1) 『불교』 신31집(1941.12), p.55.

그의 행보는 일제하에서도 독립운동, 친일을 둘러싼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행보를 명쾌하게 단정할 수는 없었다. 그는 8·15해방이 된 직후와 1952년, 일제하의 주지 시절 공금을 독립자금으로 유출한 것에 대한 전말을 통도사에서 해명하였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가 입적한 1965년까지는 별 논란이 없었다.

한편 2005~2008년, 한국 사회에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인 청산을 요구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등장하였다. 이런 흐름에서 구하는 친일승려로 지목을 당하였다. 그러나 통도사의 문도들이 구하의 ‘항일·불교운동’에 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자료집을 만들어 제출하면서 관련 당국에 이의 신청을 강력하게 하였다. 그 결과 구하는 친일승려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구하가 친일승려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것은 구하가 다양한 방면에서 민족운동을 추진한 사실과 함께 독립자금을 지원하였다는 관련 문건 및 영수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런 전제하에서 필자는 2005~2010년 무렵 친일파 청산이라는 흐름 하에서 구하를 비롯한 다수의 승려 문도·후손이 겪었던 제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구하가 친일승려에서 빠져 나오게 하였던 독립자금 영수증에 관련된 제반 내용을 살피려고 한다. 그러면서 통도사가 구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활동도 요약하겠다. 이것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하 독립운동의 핵심은 상해에서 제작·배포된 승려 독립선언서의 서명자라는 사실, 그리고 3·1운동 직후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승려 독립선언서에 대한 개요는 필자가 그 개요 및 성격을 연구하였기에<sup>2)</sup> 이 글에서는 구하가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전달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미진한

2) 김광식,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와 민족불교론」,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

측면은 지속적인 자료 수집, 분석, 탐구로 보완해 가고자 한다.

## II. 불교계 항일, 친일의 논란

2005~2010년 무렵, 친일과 청산이라는 흐름 하에서 불교계의 다수의 승려들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았던 제반 내용을 요약하려고 한다.

불교의 친일 문제는 임혜봉이 1993년, 민족사에서 펴낸 『친일불교론』(2권)에서 본격화되었다.<sup>3)</sup> 당시 이 책의 파장은 매우 컸다. 임혜봉은 그 책을 ‘식민지 시대 불교의 친일군상’이라는 주제로 서술하였다. 임혜봉은 친일승려에 대해서는 이회광, 이종욱, 권상로, 김태흡 등 4명만을 친일거두로 제시하였다. 이때부터 승려의 친일 문제의 논란이 시작되었다.<sup>4)</sup> 그 이후 임혜봉은 친일 불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2005년에는 『친일승려 108인』(청년사)을 펴냈다. 그는 2001년 12월 2일,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국회의 공청회에서 제시한 친일과 개념을 활용하였다. 임혜봉이 활용한 친일승려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독립운동에서 변절하여 부일협력한 자.
- 학병, 지원병, 징병, 징용, 공출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자.
- 창씨개명을 수창(首唱) 하거나 권유한 자.
- 언론, 예술, 학교, 종교, 문학 기타 각종 문화 기관을 통하여 일제 통치를 찬양하고, 독립(민족해방)운동을 방해하고, 내선융화,

3) 윤창화,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민족사, 2010, pp.251-256.

4) 1998년 3월 18일,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 이종욱 친일 논란에 대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간담회는 국가보훈처에서 조계종의 의견을 요청함에 따른 종단의 응답을 하기 위해서 열렸다. 참석자는 압도(교육원장), 밀원(연구소장), 박경훈(법보신문 주필), 혜봉(친일불교연구가), 김광식(독립기념관)이었다. 박희승(종단 과장)의 발제를 듣고 토론하였다. 『불교신문』 1998.3.24., 「이종욱 스님은 독립유공자로서 공적에 흠결이 없는가」.

황민화 운동을 추진시키고, 일제 전쟁에 협력한 자.

- 일제 전쟁을 돕는 군수품을 생산하고 자원을 제공한 자 및 거액의 금품과 비행기 등을 헌납한 자.
- 일본 정부, 일본 군부, 조선총독부로부터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
- 일제 통치 기구의 각종 단체의 간부와 직원<sup>5)</sup>.

위의 7개 항의 내용을 임혜봉은 친일승려들에게 적용시켰다. 임혜봉은 이 기준에 의거하여 108명의 승려를 친일파로 단정하였다. 그는 108명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분류하였다.

1장 일제 초의 친일승려들

2장 중일전쟁기 본산 주지들의 친일 행적

3장 말사 주지와 포교사의 친일 행적

1절 친일행적이 다대한 주요 친일 승려들

2절 마스크에 보도된 극성스러운 친일 승려들

4장 불교 언론계와 학계의 친일 승려들

5장 중앙교무원과 총본산의 친일 승려들

6장 대동아전쟁기 친일 승려들<sup>6)</sup>

이와 같은 기준에서 친일승려들을 지목하여 분석, 서술하였다. 그 명단에는 본 고찰의 대상인 김구하 뿐만 아니라 이종욱, 최범술, 김동화, 허영호, 김영수, 박영희 등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불교계에서는 반발, 이의제기가 미약하였다. 불교언론에서 보도되지도 않았고, 불교계 구성원은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2007년 정부(노무현 정권)가 주도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5) 임혜봉, 『친일파 108인』, 청년사, 2005, p.10.

6) 위의 책, 차례.

위원회(2005.5.31 설립)에서는 친일파를 선정 작업을 하였다. 위의 위원회를 출범시킨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4.3.22 공포)’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정의를 20개 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중 친일승려들은 13조, 20조에 주로 해당되었다. 그는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식민 통치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민족문화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 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이었다. 이런 논리에서 진상 규명위원회는 2009년 11월 최종적으로 1,006명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발표하였는데, 9명의 승려를 친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 9명은 권상로, 김태흡, 박윤진, 이종욱, 허영호, 강대련, 광법경, 이회광, 김용곡 등이었다.<sup>7)</sup>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3권을 발간하였는데, 『친일인명사전』에서는 친일승려로 54명을 최종 등재하였다.<sup>8)</sup> 김구하와 최범술은 친일승려 검토 과정에서 선정되었으나 문도와 후손의 강력한 이의제기, 자료 제출로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필자가 지켜본, 관여된 내용을 역사 증언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요약하여 제시하겠다.

### <이종욱>

- 독립유공자(3·1운동, 임시정부)

7) 1차로 선정된 대상은 이종욱, 허영호, 이회광, 권상로, 김태흡 이었다. 2002년에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처음 친일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불교계 일부 언론에서만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있었다. 이만섭, 「친일불교 인사 선정 논란」, 『주간불교』 2002.3.7.

8) 『법보신문』 2008.4.30, 「불교계 친일 인사 54명 공개」. 그 대상자는 강대련, 강성인, 광기중, 광법경, 권상로, 김경립, 김경주, 김동화, 김법룡, 김삼도, 김영수, 김영호, 김용곡, 김재홍, 김정섭, 김정해, 김지순, 김진원, 김침암, 김탄월, 김태흡, 김한승, 박대륜, 박도수, 박명운, 박영희, 박원찬, 박윤진, 박찬범, 변설호, 손계조, 신윤영, 신태호, 유재환, 윤상범, 이덕진, 이동석, 이명교, 이보담, 이석두, 이종욱, 이태준, 이훈성, 이회광, 임석진, 장도환, 정병현, 정창윤, 정충의, 차상명, 최취허, 허영호, 홍태욱, 황벽응 등 54명이다.

- 일제하의 총무총장, 월정사 주지
- 조계종 총무원에서 진상규명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공문 발송 (2009.9.7)
- 후손(이재창 동국대 교수), 지관스님(총무원장), 보선스님(문도, 대흥사), 김광식(동국대), 박희승(조계종) 등 조계종에서 협의
- 규명위원회 방문 항의(보선스님, 김광식, 박희승)
- 공문에 이의신청서, 「반박문」(집필, 김광식),<sup>9)</sup> 자료 첨부
- 규명위원회, 이의신청을 기각(2009.10.16)
- 소송은 하지 않음<sup>10)</sup>
- 국무회의에서 서훈을 취소(2010)
- 문도회, 국립묘지에서 사리 수습, 대흥사로 이전(2011)
- 학술세미나(2007.4.13) 개최<sup>11)</sup>
- 책 발간(박희승, 『지암 이종욱』, 조계종출판사, 2011)

<허영호>

- 독립유공자(3·1운동, 납북)
- 만당 당원, 중앙불전 학감, 종정 사서
- 후손 : 행정심판 제기(2011)
- 1심(2011)과 2심(2012)은 승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최종 패소 (2013)<sup>12)</sup>

---

9)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시작하는 말, 지암의 항일 독립운동, 위원회의 잘못된 역사 해석과 과도한 행정행위의 지적, 독립운동가의 증언·판단·지성을 무시하는 위원회의 편향성, 일제 말기까지의 지암의 항일운동을 인정하는 불교계의 증언 사료들. 공문과 반박문의 사본은 조계종 중앙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다.

10) 이종욱의 아들인 이재창은 소송을 해 봐야, 주어진 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기에 무망하다고 필자에게 개진하였다.

11) 지암불교문화재단이 주최하였는데, 조계종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법보신문』 2007.4.25, 「지암불교재단 ‘이종욱의 독립운동’ 학술대회 개최」.

12) 『연합뉴스』 2015.6.9., 「‘친일행적’ 독립운동가 허영호 선생 서훈 취소 적



- 김광식은 이의신청서<sup>13)</sup> 작성 후손에게 제공, 소송에 첨부
- 서훈 취소
- 만해학회, 「만해와 허영호」 학술 세미나 개최(2015.7)<sup>14)</sup>

#### 〈최범술〉

- 독립유공자(3·1운동)
- 만당 당원, 다술사 주지
- MBC PD수첩(2004.3.2)에서 친일 승려라고 주장(임혜봉)
-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승려로 검토(2005)
- 『친일파 108인』(2005), 친일승려로 지목
-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친일 대상자로 선정치 않음
- 후손, 제자(김상현, 목우스님) 이의 제기
- 김상현, 「효당 최범술의 독립운동」 기고(『동국사학』 40, 2004)<sup>15)</sup>
- 학술 세미나 개최, 여론 환기<sup>16)</sup>
- 효당 최범술 추모 학술대회(조계사, 2006.8.15)  
김상현,<sup>17)</sup> 김광식<sup>18)</sup> 등 발제

---

법」。 허영호 사건은 2013년 3월 14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그러자 고법은 2013년 10월 1일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 13) 그 문건 제목은 「허영호, 독립유공자 배제 처분에 대한 이의」(10면) 이었다.
- 14) 『만해학보』 14·15합호(2015)에 특집논문 6편이 게재되었다. 후손(허영선)의 후원이 있었는데, 허영호의 친일 논란을 잠재우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
- 15) 『법보신문』 2005.3.7., 「김상현 교수, ‘효당 친일론’ 논박」.
- 16) 효당사상연구회를 발족시키고, 언론에 부당성을 호소하였다.
- 17) 『금강신문』 2006.8.16, 「효당 최범술 스님은 변절한 적 없다, 8월 15일 열린 추모 학술대회서 김상현 교수 주장」.
- 18) 필자의 최범술 고찰은 다음과 같다. 김광식, 「만해와 최범술, 그리고 다술사」, 『우리가 만난 한용운』, 참글세상, 2010.; 「한黨과 효당 최범술」, 『민

-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승려에서 제외(2008)
- 후손, 임혜봉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청 고소 제기(2005)
- 김광식, 효당은 친일행적이 없다는 소견서를 재판부 제출(2009, 공증)
-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2010, 표현 자유, 명분)
- 『효당 최범술 문집』(전 3권)을 발간(민족사, 2013)

이렇듯이 관련 문도, 후손은 친일승려로 지목당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일부 승려들의 문도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수용하였다.<sup>19)</sup> 그러면 여기에서 독립운동의 행적을 갖고 있는 승려들의 문도·후손들이 국가유공자로 만들려는 행보가 있었음을 소개한다. 항일의 노선을 간 승려들의 공적을 국가로부터 평가받고, 역사에 남기려는 행보였다.

#### <오성월>

- 승려독립선언서 서명, 임시정부에 독립자금 제공<sup>20)</sup>
- 범어사 주지, 선학원 이사장
- 후손, 민원 신청
- 명정학교(범어사 경영) 교사 협조

#### <송만공>

---

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 「다술사와 항일비밀결사 만당」, 『불교연구』 48, 2018.; 「다술사 안거법회(1939), 개요와 성격」, 『퇴계학논집』 24, 2019.

19) 독립유공자이었던 대흥사 주지인 박영희, 범어사 주지인 차상명도 서훈이 취소되었다. 『한겨레』 2010.12.10, 「독립유공자 19명 서훈 취소」. 이들 연고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김광식, 「박영희의 독립운동과 민족불교」, 『대각사상』 25, 2016.

20) 김광식, 「오성월의 삶에 투영된 선과 민족의식」, 『불교와 국가』, 국학자료원, 2013.

- 한용운에게 독립자금 전달, 조선총독 정책 사건(1937)
- 간월암 독립발원 천일기도(1942~1945)<sup>21)</sup>
- 수덕사 조실, 선학원 설립 및 운영
- 수덕사(경허·만공선양회), 학술대회 3회 개최
- 대전보훈지청에 민원 공문, 수차례 발송
- 김광식, 「만공스님 독립운동 요지」 등 기초자료 제공

<박한영>

- 임제종운동, 한성임시정부 수립
- 구암사 강원 강주, 중앙불전 교장
- 선운사, 민원 제기
- 김순석, 「박한영의 항일활동과 서훈문제」 발표(2011.9.25, 선운사)<sup>22)</sup>

<김어수>

- 불교청년(범어사), 항일 비밀결사 주도, 수감(6개월)
- 후손·제자, 민원 제기
- 김광식, 의견서를 후손에게 제공, 국가보훈처 제출

현재 국가보훈처에 불교와 관련한 인물로 국가 유공자로 등록된 대상은 110명에 달한다.<sup>23)</sup> 위에서 제기한 승려 이외에도 자료 부족, 후손 및 문도의 미약으로 독립운동 공적은 있으나 포상을 받지 못한 대상이 다수 있다. 이 방면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불교계의 의식 고양으로 정

21) 김광식, 「만공의 정신사와 총독부에서의 ‘선기발로’(1937) 사건」, 『향토서울』 91, 2015.; 「만공의 민족운동과 유교법회·간월암 기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9, 2016.; 「만공·만해·김구의 독립운동 루트」, 『대각사상』 31, 2019.

22) 선운사 주관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다.

23) 김성연, 「독립유공자 현황으로 본 불교계 독립운동 양상」, 『불교평론』 77, 2019.

당한 평가를 받기를 기대한다.

### Ⅲ. 구하의 독립운동 자료

구하의 독립운동 행적은 인정되고, 친일승려에서 제외되었던 전후 사정을 역사적인 근거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구하는 일제하 불교에서 독립운동, 민족운동의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통도사 주지와 종단 대표를 역임하였기에 불가피한 우호성의 행보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행적, 의식에 대한 자료 수집, 분석, 연구가 희박하였기에 구하에 대한 단정적인 설명, 서술은 매우 난감한 문제이었다.

그러면 언제부터 구하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는가? 이에 그 진실의 속으로 들어가 보겠다. 8·15해방 공간에서 구하의 친일 논란, 통도사 공금 유용에 대한 문제는 공적인 사실로 제기되지 않았다. 다만 해방 직후 통도사 대응전에서 구하는 대중들에게 설명하였다고 전한다.<sup>24)</sup> 그러나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가 1949년부터 총무원장의 소임을 역임하다가 그만둔, 6·25전쟁 기간의 통도사에 있을 때 문제가 나왔다. 왜 하필 그런 문제가 그 시점에서 제기되었는가에 대한 전후 사정은 단정할 수 없다.

하여튼 구하 그는 1952년 6월에 그가 행한 통도사 자금 유용 및 독립자금 제공에 대한 전후 사정, 그리고 그가 독립자금으로 투입한 비용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그는 그 문건을 「진정서」, 「반환 청구서 이유」 등으로 제목을 달았고, 통도사 중무소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문서는 통도사에 보관되어 있었다.<sup>25)</sup>

24) 『축산문집』, 통도사, 1989, p.629.

25) 보관 장소는 알 수 없다.

그러면 언제 이 문서가 세상에 공개되었는가? 구하는 1965년 10월에 입적하였다. 기이한 것은 그가 입적하기 직전 서울에서 삼보학회가 주관한 『한국불교최근백년사』 편찬 사업이 시작되었다.<sup>26)</sup> 즉 1965년 5월부터 기획이 본격화되었고, 그해 12월에 『대한불교』에 社告로 사업이 공개되었다. 그래서 그해 겨울부터 각 지방의 사찰로 가서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통도사로 자료 수집을 간 팀은 정광호·배종규 팀이었다. 정광호가 팀장 역할을 하였는데, 그는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였던 사학자이었다. 정광호가 통도사에서 수집한 자료에 구하의 그 자료가 포함되었고, 백년사의 가리방본(원고)에 수록되었다. 그런데 백년사 편찬 사업은 1970년 7월에 중단되었고, 그 이후에도 정식 출판되지는 못하였다. 출간되지 못한 사정에 구하의 문제가 개입되었고, 그를 문제로 삼은 인물은 구하의 법상좌인 월하 이었다. 이에 대한 전후 사정은 필자의 논문에서 자세히 정리하였다.<sup>27)</sup> 그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삼보학회가 추진한 백년사 편찬의 성과물에 통도사(주지 박원찬)가 일제에게 군용기를 헌납한 사실이 포함되었다.<sup>28)</sup> 이를 알게 된 월하는 왜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는가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그런 내용으로 인해 자신의 은사인 구하가 친일파로 불릴 수 있다는 강력한 이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마침내 편찬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한 이한상(당시 대한불교 사장, 대한전척 사장)은 작업을 중단하였다. 당신은 불교 발전을 위해 하였는데, 오히려 반발을 받아 출판 직전에 사업을 중단시켰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이해한 전제에서 백년사 가리방본에 수록된 전문을 제시하겠다.

26) 김광식, 「삼보학회의 ‘한국불교최근백년사’ 편찬 시말」,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27) 위의 책, pp.579-581.

28) 통도사가 1대, 경남 지역의 사찰과 신도가 연합하여 1대를 헌납하였다.

1919, 3·1운동 이후 통도사에서 독립운동 자금 유출됨. 이 독립운동 자금 문제에 대하여 당시 주지로 있던 金九河 회상이 1952.8.17日자로 寺中에 친필 陳情書를 제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陳情書

본인이 년15세에 入山하여 于今 81년이라. 그간 학업에도 幾年間 光陰을 보냈지마는 本寺 明新學校 창립으로 26년간 無給으로 勤勞하였고 住持任도 14년간 薄之無給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로도 不顧私而但爲公 經過가 于今 66년이라 소유재산은 囊無一錢이오 甌無貯粟이라. 年當 81에 四大가 쇠약하고 兼爲耳聾하니 可謂 魂不散之死人이라. 崔住持 취임 후 3차 진정하였더니 그 답이 매년 師佐佛糧과 需用費 每個月 10萬円씩 衆論決議하였다 하기 垣垣信之安心하였드니 今已 佛糧米는 禪糧에 并食케 되니 近九老身으로 일체 행동이 精進 首座와 并同치 못하니 何敢禪糧에 參席乎아. 此 請求도 대단 미안하오나 木石不接으로 할 수 없어 百計一事로 如此請求하니 不顧人事體面하시고 居山 數十年에 爲寺而居타가 老境에 移他도 不思之事이오 寺의 체면도 박약이오니 衆論一致로 可決하여 주시기 伏祝伏望하니 이다.

佛紀二九七九年 六月 二七日

龔老 九河 謹識

敎務院 僉德  
大衆座下

返還 請求書 理由

一金 一億九千九百五十萬五千三百圓也. 右는 去己未年 3·1사변에 本人이 通度寺 住持 재직중 運動 기밀비로 用한 것이 一萬三千圓인 바 右寺 僧侶中 反動分子 등이 日本 司法官廳 思想犯으로 고소하여 徵出한 바.

金海 大地面 本人의 소유토지 畝 4,500坪  
梁山 下北面 本人의 소유토지 畝 2,000坪

計 6,500坪 現時價 每坪 3,000圓

自己未年 至己丑年까지 30년간 每年 元口料 30石씩 計 900石 現時價 二十萬圓 當時 殖産銀行 借金 二千圓(30년간 本利並).  
檀紀 四二八四年 十一月中 계산이 一億九千九百五十萬五千三百圓也.

檀紀 四二八五年 八月 十七日  
通度寺住持 及 職司與敎務員 僉衆

證

- 一金 5,000円 安昌鎬 國務總理時 上海서 送人持去
- 一金 2,000円 白最勝(初月) 京城서 革新公報社長時 持去
- 一金 3,000円 李鍾郁 軍資金收集 送人持去
- 一金 1,000円 鄭寅燮 獨立運動 卽接持去
- 一金 500円 吳利山 上海去時 梵魚寺와 공동보조
- 一金 500円 張載輪 獨立運動 卽接持去 東來
- 一金 500円 辛定欽 獨立運動 卽接持去 通度
- 一金 300円 金包光 上海去時 路費로 給 京城
- 一金 100円 鄭 鐸 獨立運動 參如時持去 通度
- 一金 100円 梁萬佑 同時 觀光 持去

『通度寺 會議錄綴』<sup>29)</sup>

이상과 같은 문건의 내용을 필자의 관점으로 요약하여 제시하겠다. 우선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구하는 당신이 통도사로 입산하여 81살이 되던 그때까지 66년간 공심, 헌신으로 살아왔기에 1952년 그 당시에 개인 재산이 일체 없었다고 한 점이다. 예전 불교계에는 自備糧 제도라 하여 모든 승려들은 자기의 식량을 자기가 부담하는 제도가 있었다. 때문에 공직과 소임을 맡은 승려들은 해당 소임비로 그를 해결하지만 그렇지 못한 승려들은 각자가 자기의 식량, 용돈을 충당해야만 되었다. 그래서 구하는 자신이 일체 재산이 없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다고 주

29) 『韓國佛教最近百年史編年』 제1권, 민족사, 1987, 「5.사회참여」, pp.35-36.

장하였다. 다음 두 번째는 구하는 통도사 당국에 진정을 3차례나 한 결과로 師佐佛糧米와 需用費로 매달 1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집행이 정상적으로 안 되었기에 재차 진정하였다. 세 번째는 구하는 1952년 시가로 자신이 통도사에서 받을 금액을 199,505,300원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3·1운동 직후의 독립자금 기밀비와 그 이후 30년간의 이자 등을 합산한 것이다. 네 번째는 구하가 독립자금으로 쓴 내역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10건(안창호, 이종욱, 백초월, 김포광, 오리산 등)에 이르는 세부 내역의 금액, 수취인,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백년사 가리방본에 포함되었지만, 그 책은 출간되지 못하였기에 이 내용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가리방본 백년사는 1987년 5월, 도서출판 민족사에서 영인본으로 제작되어 보급되었다. 이는 목정배(동국대) 교수가 보관하였던 것을 홍사성(불교신문사)의 권유에 의해 영인한 것이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 내용을 접하였을 가능성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근현대 불교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였기에, 구하의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은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한편, 통도사의 구하 문도들은 1972년에 『靈鷲文集』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이 문집은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필자도 열람하지 못하였다.<sup>30)</sup> 그 후 1998년 구하 문도는 예전의 문집을 보완하고, 대중을 위한 번역 작업까지 하여 『靈鷲文集』을 출간하였다. 이때에는 『金剛山觀賞錄』까지 함께 펴냈다. 그때 『영축문집』을 기획한 장충식(동국대) 교수는 그 책의 말미에 「靈鷲山の 큰 별 九河 스님」이라는 행장을 서술하여 기고하였다. 그 내용에 본 고찰과 관련한 것이 있다. 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0) 동국대 중앙도서관에도 없다.



스님의 對 社會的 기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양면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보내어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았는데,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거짓 親日을 하기도 하셨던 점이다. 특히 당시 白山商會 安熙濟에게 거액의 독립자금을 주셨고, 그 외에도 白初月, 金尙昊, 梁大應을 비롯하여 동래의 鄭某 등 여러 사람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독립자금을 전달하셨으며 그 내용은 鉢盂의 설포 전대를 뒤집어 소상하게 기록해 두셨다. 그러나 해방직전 일제의 압박이 더욱 극심해지면서 유수한 이들의 책과 사물을 조사한다하여 제자 月下스님은 노스님에 관한 많은 자료를 불태우고 말았으니 이는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또한 훗날 알게 된 일이지만, 이때 사용된 군자금 가운데는 상당액의 사중 자금이 유입됨으로써 주지직을 사임하지 못하고 무려 15년 동안이나 유지하기도 하셨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후 김해에 있던 스님의 私田 30여여 마지기를 팔아 충당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광복 다음해에 스님이 대웅전에서 대중 앞에 직접 밝힌 일화는 유명하다.<sup>31)</sup>

이와 같은 내용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하의 독립운동 자금 지원은 통도사 승려들에게는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점이다. 둘째, 구하는 자신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제공한 내용을 발우 전대에 기록했다. 그런데 일제 말기,<sup>32)</sup> 이를 위협스럽게 여긴 상좌인 월하가 소각하였다. 셋째, 구하의 독립운동 자금에는 통도사의 공적인 재원이 투입되었다. 그래서 구하는 자신의 김해 토지(30여 마지기)를 팔아 충당하였다. 넷째, 구하는 자신이 실행한 독립자금의 비사를 1946년, 통도사 대웅전에서 대중에게 직접 설명하였다는 것이다.<sup>33)</sup>

31) 『鷲山文集』, 영축총림 통도사, 1998, pp.628-629.

32) 그 시점에 대한 증거는 부재하다.

33) 이에 대한 내용은 보완되어야 한다. 통도사 스님들에게서 증언을 청취해야 한다. 이에 관련하여 성과스님(현, 통도사 방장)이 필자에게 증언한 다음 내용은 주목할 내용이다. 이는 『삼소굴 법향』, 2020, pp.179-181에 나온다. 그런데 성과는 2021년 10월 28일, 동국대에서 세미나(구하와 한암)의 치사 발언에서 아래의 발언은 양산 향토사학자가 김철수에게 들은 것을 자신에게 전해 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 통도사에 만해스님의 이야기가 많은 것은 통도사 스님들의 민족의식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여간에 만해스님이 통도사에 오신 것은 구하스님이 오시라고 해서 오신 택인데, 만해스님이 그냥 가시니깐 구하스님이 매우 섭섭하셨을거야. 그리고 이것은 내가 추정하는 것인데 내 짐작에 구하스님이 심우장을 마련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 그러나 어떤 근거는 없어요. 김용호를 통해서 계속 용돈을 보낸 것을 보면 그런 추정을 해 보았던 것이지.

만해스님은 뿔거리가 부족할 정도로 어려웠대요. 그 당시 한용운은 호적이 없어서, 맞아 죽어도 살인이 아니라고 했다. 그분은 창씨개명도 안 한분 아냐? 통도사 안양암에 있다가 당신 때문에 대중들이 불편하다고 하면서 그냥 심우장으로 가신 것이지. 구하스님과 만해스님은 노선은 극과 극으로 달라. 구하스님은 친일이라는 말을 들었고, 만해스님은 반일이라는 말을 들었지. 그러나 두 스님은 서로 통하였던 것이 있었지. 그러나 구하스님의 친일은 외형적이고 실질적으로는 군자금도 대고, 상해 임정을 후원하셨던 분이지.

- 구하스님은 승려 독립선언서에 '김축산'으로 나오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건국이 바로 안 되고 미군정이 들어섰어. 해방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이 전국 각지에 세워졌지. 그때 건준의 경남지부가 부산에서 결성이 된거라. 그래서 결성을 하는 날에 부산에 김구선생이 내려와서 지부 결성을 하는데 지부장으로 김철수라는 지식인이 추대됐어. 이 사람은 부자집 아들인데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반일운동을 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부장으로 적임자이기에 추대된 것이지.

그리고 결성식이 끝난 다음에 대한청년단 단원들이 웅성웅성 하드래. 그 시절에는 무정부 시대이라, 치안과 경찰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 김구선생이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청년단 단원이 하는 말이 "이제 통도사로 가서 김구하를 때려 죽이러 간다"는 거야.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웅성웅성 한거야. 그러자 김구가 나서서 "김구하 스님은 우리와 동지인데" 그랬대. 김구선생은 그때 국부(國父)와 같은 존재로 김구의 말이 법인데, 그런 김구가 입으로 '우리 동지'인데 그렇게 말하자 청년단의 시도가 유아무야, 취소된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 이것은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돼. 반드시 써야돼. 구하스님이 그렇게 된 것은 여기 양산 출신으로 윤현진이란 사람이 상해 임정의 재무부장인가 차장인가를 했어요. 구하스님이 임정에서 온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 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윤현진은 김구선생에게 보고하였는지. 그러니 상해 임정의 간부들만 아는거라. 비밀로 보낸 군자금은 일반인들은 모르는기라. 김구선생이 구하스님을 우리와 동지라고 그랬대. 이 말은 오늘 처음으로 나온거야. 김교수가 자꾸 물으니깐 나온 것이지. 그래 가지고 그 이후로 구하스님이 별 탈이 없었어. 구하스님이 해방공간 때에 친일파 명단에서 빠진 것도 이런 것이 있었기에 그리 된거

이 내용은 장충식의 서술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다섯째, 장충식은 문집의 기획을 하고 이 글을 쓰면서 통도사에 보관된 '구하 문건'의 존재를 알았을까 하는 점이다. 이는 단언할 수 없다.<sup>34)</sup>

지금까지 구하가 독립운동에 자금을 지원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의 작성, 보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자료는 1998년 이전에는 통도사에 보관만 되었고, 『영축문집』에서 설명되었을 뿐이었다. 『한국 불교최근백년사』(1970, 1987)에도 포함되었지만 일반 대중, 연구자들도 잘 알지 못하였다.

#### IV. 구하의 독립운동 자료, 대중화

구하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만든 인물은 강석주, 박경훈, 정광호이다. 강석주는 1979년의 『중앙일보』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연재하였다. 강석주가 구술로 회고하면, 관련 자료를 보고 거기에 살을 붙인 인물이 박경훈이다. 연재를 마치고, 강석주와 박경훈은 공동으로 『불교근세백년』(중앙신서, 1980)을 펴냈다. 그 책의 김구하 스님 파트에<sup>35)</sup> 구하의 독립자금 지원 내용이 나왔다. 이것이 최초의 학술적인 서술이었다.

정광호는 삼보학회 연구 간사로 『한국불교최근백년사』의 자료수집, 편집, 출간을 담당한 실무자이었다. 그는 통도사에서 구하 독립운동의 문건을 열람하고, 그를 옮겨 적어 백년사에 포함시켰다. 그는 불교신문의 기획위원 겸 기자로 있다가, 인하대 사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근현대불교의 연구를 개척하였다. 구하 독립자금의 사실을 자신의 논고에

라. 김구 선생의 발언 때문에, 그 바람에 잔잔한거라.

34) 필자는 그 존재를 몰랐을 것이라고 본다.

35) 『불교근세백년』, 중앙일보 동양방송, 1980, pp.181-187.

간략하게 서술하였다.<sup>36)</sup>

정광호는 1999년 인하대에서 정년을 맞았는데, 이때 그는 자신의 정년을 기념하는 자료집을 출간하였다. 그 책은 『韓國佛教最近百年史編年』(인하대출판부, 1999.8.30)이었다. 그는 그 책의 머리말에서 그 책은 1965년에 시작된 『자료집성 한국불교최근 백년사』라는 초고 형식의 프린트본을 기본으로 하였음을 밝혔다. 그런데 그 책의 사회참여 파트에 전장에서 소개한 즉 통도사 회의록철에서 발췌된 구하의 독립운동 자금 문건 내용을 재수록하였다.<sup>37)</sup> 이로써 구하의 독립운동 지원은 자료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로 대중화가 되었다. 이때부터 근현대 불교 연구자들에게는 보편적인 역사로 수용되었다.

한편, 필자는 1992년부터 근현대 불교를 연구하면서 정광호를 알게 되었다. 정광호의 저서를 구해 읽으면서 구하의 내용도 파악하였다. 그러면서 『한국불교최근백년사』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다. 백년사의 기획, 자료수집, 편집, 중단에 이르렀던 일련의 과정이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그에 대한 자료, 보도기사, 증언 등을 수집하여 「삼보학회의 ‘한국불교최근백년사’ 편찬시말」이라는 논고를 집필하였다. 필자는 이 논고를 정광호가 재직하였던 인하대 사학과 학회지인 『인하사학』 7집(1999)에 기고하였다. 이런 연유로 인해 필자는 구하의 독립운동 지원 사실, 그리고 백년사 발간 중단에 구하의 ‘친일논란’이 개입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전후 사정을 연구하겠다는 생각은 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게으름, 인연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 2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구하 연구’를 하게 되었다.

구하의 독립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4년 12월 19일, 통도사

36) 정광호, 「일본 침략시기 불교계의 민족의식」, 『윤병석교수화갑기념 한국 근대사논총』, 지식산업사, 1990.; 정광호, 『근대한일불교관계사연구』, 인하대출판부, 1994, p.129.

37) 정광호, 『韓國佛教最近百年史編年』, 인하대출판부, 1999, pp.241-242.

에서 열린 월하스님 1주기 추모 학술세미나, ‘통도사 현대고승의 재조명’에서 시작되었다. 한동민(수원시 전문위원)은 그 행사에서 「근대시기 통도사의 변화와 김구하스님의 활동」이라는 논고를 발표하였다.<sup>38)</sup> 그 행사의 보도기사에 나온 내용을 제시한다.

통도사 구하스님이 일제 때 독립운동 자금을 비밀리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구하스님은 일제때 대찰 주지를 지내면서도 비밀리에 독립자금을 지원, 이 때문에 통도사 소유의 전답 상당량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당시 통도사 사중 일부가 반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민 수원시 전문위원은 지난 19일 통도사에서 열린 월하스님 1주기 추모 학술세미나에서 ‘근대시기 통도사의 변화와 김구하 스님의 활동’이라는 논문에서 “구하스님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1300만원을 비밀리에 지원했다는 것이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는데, 1951년 통도사 주지와 소임자들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독립운동 자금으로 1300만원이 지출되었고 당시 김해 및 양산의 토지 6500평을 처분하여 변제했다는 구하스님의 진술은 관련 자료는 없지만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독립운동 기밀비는 ▲ 안창호 선생이 임시 정부 국무총리 재직시 5000엔 ▲ 백초월 스님 경성서 혁신공보 사장 시절 2000엔 ▲ 이종욱 당시 중무원장이 군자금 수집 때 3000엔 ▲ 온천에서 독립운동가 장인섭에게 1000엔 ▲ 범어사와 공동으로 상해에서 500엔 ▲ 동래에서 독립운동가 장재륜에게 500엔 ▲ 통도사에서 독립운동가 신정흔에게 500엔 ▲ 김포광에게 300엔 ▲ 정탁의 독립운동 참여에 100엔 ▲ 양만우에게 100엔 등이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는 구하스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이나 기록이 없는 점, 확인 자료가 없는 점, 독립운동 자금의 제공 시점과 진술 시점에 격차가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을 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동민 위원은 “10명에 대한 정확한 기억과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 조작으로 치부하기에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근래 경봉스님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와 거의 비슷한 내용의 자필 원고가 나왔는데 약간의 문구 차이만을 뺀 10명에 대한 독립운동 지원금 액수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파스님도 “당시 상해 임시정부 재무부장이 양산 사람이어서 스님과

38) 필자는 그 세미나에서 ‘월하의 불교정화운동’을 발표하였다.

그 재무부장간에 비밀리에 독립자금을 건넸다”며 “당시 공개리에 자금을 댈 수 없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주지 인사권을 갖고 있던 총독부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사람으로 주지를 교체하려고 시도했던 것을 보더라도 구하스님의 항일 정신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sup>39)</sup>

위의 보도기사에 나오듯이 한동민은 구하의 독립운동 지원은 사실이라고 최초로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구하스님의 진술은 관련 자료는 없지만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표현에 보이듯 새로운 자료의 발굴은 하지 못하였고, 개연성으로 자신의 주장을 하였다.

구하의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는 2005년 3·1절을 기해 통도사(주지, 현문)가 구하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더욱 진일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당시 그에 대한 보도기사를 제시한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구하 스님이 일제시대에 비밀리 독립운동자금 지원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구하 스님 입적 40주기를 맞아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24일 공개한 이 자료들은 통도사 주지였던 설우 스님이 주지직에서 은퇴한 구하(1872~1965) 스님에게 써준 독립자금 관련 영수증 5장과 안창호 선생 등 10명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나타내는 ‘사변시(事變時·3.1운동을 지칭) 출금증’ 등이다.

‘중요문건(重要文件)’이라고 쓰인 종이에 조심스럽게 싸여진 이 문서는 구하 스님이 독립운동 기밀비로 총 1만3천환을 내놓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설우 스님이 구하 스님에게 1927년 써준 영수증들은 구하 스님의 재산을 모두 통도사에 내놓은 것처럼 꾸며 자신의 재산을 모두 독립운동자금으로 빼돌렸음을 증명하고 있다.

‘사변시 출금증’ 문건에는 ▲ 안창호 선생 임시정부 국무총리 재직 시 5천환 ▲ 초월 스님 경성 혁신공보 사장 시절 2천환 ▲ 이종욱 당시 총무원장 군자금 수집 때 3천환 ▲ 온천서 독립운동가 장인섭에게 1천환 ▲ 범

39) 『불교신문』 2004.12.24, 「구하스님 비밀리 독립운동 지원」, 한동민씨 월하스님 1주기 학술세미나에서 주장.

어사 공동으로 상해서 500환 ▲ 동래서 독립운동가 장래륜에게 500환 ▲ 통도사에서 독립운동가 신정훈에게 500환 ▲ 김포광에게 500환 ▲ 정탁의 독립운동 참여에 100환 등의 독립자금 지원 내역이 기록돼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현문 스님은 “구하 스님이 자신의 제사에 쓰고자 남겨놓은 김해·양산의 토지 6천 500평의 제우답을 모두 처분해 독립자금으로 내놓았다”며 “이 자료들은 2003년 11월 경 월하스님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거사 재평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다 곧 있으면 3.1절이라 자료를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 “생전에 월하스님이 왜 이 귀중한 자료를 내놓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번 자료 공개는 스님의 친일행적에 대한 미화보다는 스님께서 열반하기 직전에 남기신 ‘절대 부의금을 받지 말라’는 등의 유훈을 놓고 볼 때도 스님이 결코 단순히 친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sup>40)</sup>

위의 보도기사에 나온 주목할 내용을 몇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겠다. 첫째, 구하 자료의 원본(이유서, 영수증, 출금증)이 언론에 최초로 공개되었다. 이 자료는 정광호가 1965년에 통도사에서 발굴한 것과는 별개의 자료이다. 둘째 구하의 제자인 월하는 생전에 이 자료를 상좌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그의 입적 직후인 2003년 11월, 상좌들이 월하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1965년 12월, 정광호는 월하를 면담하였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나온다. 혹은 정광호가 본 ‘통도사 회의록철’이라는 문건의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공개된 자료에는 그 이전 정광호가 공개하였던 자료에 없었던 것이 있다. 그는 구하가 당신의 입장을 요약한 「理由」라는 문건과 독립자금 영수증(원본)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유」라는 문건의 전문을 제시한다.

40) 『현대불교』 2005.2.24, 「통도사, 구하스님 입적 40주기 맞아 영수증 등 공개」.

## 理由

己未年 三一運動에 祕用件

通度寺 住持 在職中 同志하여 補助費用이 金壹萬參千圓也 其後 住持反對派 辛太皓 黃基祐 金元種 等이 日制時 司法官廳에 上海 臨時政府 送金하는 辭令書 受하였다고 告訴하여 調査가 甚한中 答辯하기로 十數年 在職中 社交와 機密에 流用이지 절대 獨立事에 送金아니라고 변명하여 罪는 免하여으나 寺로서 金錢은 還推하였다 僅僅免하고 蟄伏하고 있다가 八月 十五日 解放後 大衆會席에 비로서 說明하고 寺金を 用한 貧道의 金徵出하여 還推하라하니 尙今不報告로

檀紀四二八四年 辛卯年에 計算하니 如左  
總計 一億八千一百九十五萬五千三百圓也<sup>41)</sup>

위의 내용은 위에서 제시한 문건(정광호 발굴)에 나온 것과 거의 유사하다. 즉 1952년에 작성된 「陳情書」, 「返還 請求書 理由」를 쓰기 직전인 1951년에 솔직담백하게 관련 사실을 서술한 것이다. 1952년에 구하가 통도사 당국에 전후 사정을 고백하고,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기 1년 전에 작성된 것이라 이해된다. 위의 문건 내용에서 흥미로운 것은 해방 직후 구하가 통도사 대웅전에서 설명한 전후 사정, 또 1951년까지 독립자금 유용 및 개인 재산 매각으로 충당한 금액을 보고치 않은 연유 등이다. 이런 점은 지속적으로 탐구할 내용이다.

또한 관련 영수증은 후임 주지인 송설우가 구하에게 1927년에 써준 것이다. 영수증의 명목은 주지 인수인계 시 미해결금으로 하였다. 구하가 독립자금으로 유용한 것을 자신의 토지 매각을 통해 갚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영수증은 총 4건이다.<sup>42)</sup> 그를 알기 쉽게 제시하겠다.

41) 『1919 양산으로부터의 울림』, 양산시립박물관, 2019, p.157.

42) 5건으로 통도사에서 발표하였으나, 여타 1건은 1962년에 구하가 최진한에게 쓴 별도의 문건이다. 영수증 사본과 번역은 『축산 구하대종사 민족운동 사료집』 상권, 통도사, 2008, pp.258-267에 수록되었다.



1. 2천원

1927.6.7.

구하 친필 : 此이 皆三一運動에 所費된 것이라 名目을 붙일 수 없으니 如此히 한 것이라  
金海 大地面 土地 28斗에 有畚爲土地 十斗地는 寺納 日 制時 警部告發하여 一萬三千円 삼일운동 告訴한 것을 便 便辨明하고 徵此인 바

2. 2천원

1927.10.30.

구하 친필 : 此이 皆三一運動에 使用한 것이라. 名目을 붙일 수 없으니 如此히 한 것이라.  
皆寺中入 一萬三千円을 大地面 土地 28斗는 畚爲○

3. 500원<sup>43)</sup>

1927.11.20.

구하 친필 : 此이 皆三一運動에 使用한 것이라. 名目을 붙일 수 없으니 如此히 한 것이라  
此等分 日制時反動派들이 一萬三千円 運動 費用中寺에 徵納 條로 大地面 土地 28斗土地 畚爲法畚十斗地를 皆寺入

4. 154원

1927.11.20.

구하 친필 : 此이 皆三一運動에 使用한 것이라. 名目을 붙일 수 없으니 如此히 한 것이라.  
此外 金海大地面 土地 28斗地는 畚爲法畚十斗地를 皆寺入이 二重貨明此에 入이라.

위와 같은 영수증에서 주목할 것은 구하의 친필이다. 그 내용은 3·1 운동 직후 독립자금 지원에 관련한 것인데, 해방이후 언제인가(?) 구하가 원본 영수증에 초서로 자신의 입장을 추가한 것이다. 송설우에게 써 준 영수증 내용에 3·1운동 당시의 독립자금으로 기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측면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하 독립운동을 말해주는 것이

43) 당시 돈 500원은 논 10여 마지기를 살 수 있었다고 전한다.

다. 구하가 자신의 토지(김해군 대지면, 28두지)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을 통도사에 납입하였음을 알게 해준다. 구하의 독립운동 자료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sup>44)</sup> 구하 독립운동을 말해주는 사료로서 가치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하 독립운동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공개되었지만, 불교계 및 학계에서의 반응은 미미하였다. 자료집으로 출간되지 않았기에 연구의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구하에 대한 문제는 의외의 곳에서 시작되었다. 즉 전술한 국가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구하를 친일승려로<sup>45)</sup> 지목하여 그 대상자에 포함시킨 사실이였다. 2007년 6월 규명위원회에서 통도사로 그 내용을 통지하자, 통도사에서는 구하의 독립운동 입증을 하여 구하가 친일승려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당시 통도사 주지이었던 정우의 회고 글에서 찾을 수 있다.

2007년 6월 18일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위원회’에서 구하대중사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서를 보내오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2005년 9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에서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1차 명단’에 구하대중사가 수록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의 이의 신청 준비 기간 동안 통도사 스님들과 사적편찬실 연구원들이 수집한 사료들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친일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

44) 그 자료가 구하의 보상 차원에서 제기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출현 시기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낸다.

45) 규명위원회에서 통도사에 보낸 통지서에 나온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11년 이래 대본산 통도사 주지로서 데라우치(寺內正毅) 총독과 면담하고 그 선정을 청송하였고, 1916년 공개적으로 데라우치의 원수 승진 축하식을 거행하였으며, 1929년 사이토(齋藤實) 총독 부임 축하문을 보냄. 1917년 30본산 연합사무소 위원장과 중앙학림 학장으로 취임하여 잡지 투고의 강연 등을 통해 천황을 찬양하였으며, 일본불교 시절 중에 메이지 천황을 청송하는 기자회견과 글을 투고하였음. 1926년 조선불교와 일본 불교 임제종과 합병을 시도하여 조선불교를 일본불교에 예속시키고자 함.

에 수차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 4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에서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1차 명단’에서 구하 대종사의 이름이 제외되었고, 2008년 8월 14일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위원회’에서도 “이의신청인의 이의 신청을 인용한다”는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되면서 그간의 고심을 토해낼 수 있었습니다<sup>46)</sup>

위의 글에 나오듯이 통도사는 구하의 친일 혐의를 벗기려고 1년간 집중적인 노력을 하였다. 통도사가 친일진상규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7)</sup>

- 1차 이의 : 2007.8.21.

첨부 자료 : 이의 신청서 1부

구하, 민족운동 사료집 3권

『축산문집』 1권, 『금강산관상록』 1권

통도사 현대고승의 재조명 세미나 자료집 1권

비고 : 구하 독립운동 자금 지원 내역

- 2차 이의 : 2007.9.21.

첨부 자료 : 이의 신청서 1부

구하, 수행연표

구하, 민족운동 사료집 5권(개정 1권, 추가 2권)

비고 : 조선총독부, 구하 조사 자료(1924~1941 : 주시대상자, 배일사상 검증)

승려선언서(상해에서 제작 : 구하, 金鷲山으로 나눔)

- 3차 이의 : 2008.5.21.

첨부 자료 : 사실 확인서 1부<sup>48)</sup>

46) 정우, 「축산 구하대종사 민족운동 사료집을 간행하며」, 『축산 구하대종사 민족운동사료집』 상권, 통도사, 2008, pp.10-11.

47)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팀에게도 이의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원회가 더욱 중요하기에 본 고찰에서는 이 내용을 정리했다.

48) 통도사 원로인 원명, 초우, 율파, 성파가 구하의 업적(교육, 포교)에 대한 확인서이다.

관보에 나온 통도사 포교 현황 1권

관보 1건

비고 : 구하의 교육·포교사업이 민족운동이었음을 강조

통도사는 사적편찬실(실장, 남현)을 가동하여 구하의 민족운동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사료집』을 만들어냈다. 이와 같은 통도사의 정열적인 노력의 결과, 규명위원회는 2008년 8월 14일부로 구하의 친일을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의 신청 결정 통지서’를 통도사로 보냈다. 이로써 구하의 친일 혐의는 해소되었다. 이런 결정의 핵심에 구하의 독립운동 지원 문건(영수증)이 있었음은 물론이었다. 그런 결정이 나오기 직전, 위원회에서 구하의 업무를 담당할 연구원이 필자를 찾아와 자문을 요청하였다.<sup>49)</sup> 필자는 구하가 독립운동을 지원한 자금의 영수증이 있으니 친일승려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 후, 통도사에서는 구하의 친일승려 제외 과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모아 『축산 구하대종사 민족운동 사료집』(상·하권, 통도사)을 2008년 10월 31일자로 발간하고, 봉정식을 거행하였다.<sup>50)</sup> 그 직후, 통도사는 근현대기 역사의 중요성, 고승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구하의 명예 회복을 위한 행보에서 얻어진 다양한 사료, 문건, 증언을 망라한 근현대 통도사에 대한 책을 펴냈다. 즉 2010년 12월 16일에 봉정식을 갖고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스님)가 전 통도사 방장 월하스님의 7주기를 맞아 통도사의 근현대 100년을 이끌어온 선지식들의 행장을 담은 서적을 발간한다. 통도사는 오는 16일 오전10시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49) 그때, 필자는 부천대 교수로 있으면서도 조계종 불학연구소의 기획담당 연구원으로 1주일에 2일 근무하였다. 그래서 불학연구소에서 대화를 하였다. 그때 종단 총무부장으로 근무한 현문스님과도 이 주제로 대화를 하였다.

50) 『불교신문』 2008.11.1, 「구하스님 민족불교운동집 ‘발간」.

- 구하·경봉·월하·벽안대종사를 중심으로>의 출판 봉정식과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는 모두 10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 1~3장(1900~1953년)은 구하·경봉대종사, 제4장(1953~1960년)은 경봉·월하대종사, 제5~6장(1960~1980년)은 월하·벽안대종사, 제7~10장(1980~2009년)은 다시 월하 대종사의 행보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상하 각권 500페이지 분량으로 지난 100년간 한국불교의 영욕을 함께하며 교단 수호와 불교 발전을 위해 진력한 통도사 고승들의 업적과 가르침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이번 서적 편찬은 지난 2007년 7월 구하스님이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비롯됐다. 이를 부당한 평가로 규정한 주지 정우스님을 비롯한 통도사 대중은 곧바로 사적편찬실을 발족하는 등 구하스님의 명예 회복을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 일제강점기 조선불교계를 대표했던 구하스님의 구국 구세 활동을 수집해 이의를 제기했다. 노력의 결과로 다행히 2008년 4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에서 제외됐으며 그해 8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이의신청을 인용한다’는 결정통지서를 받아냈다. 이러한 결실은 2008년 12월 <축산 구하대종사 민족불교운동 사료집> 발간으로 이어졌다.

통도사 사적편찬실장은 남현스님은 “통도사는 개산 이후 1400여 년 동안 출가자의 득도지(得道地)이자 불자들의 안심입명처(安心立命處)로 역대 선조사 스님들의 수많은 가르침을 간직하고 있다”며 “오늘날 통도사와 현대 한국불교를 일구어온 선조사 스님들의 업적으로 기록해 전하는 것은 통도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출판 봉정식을 마친 후엔 관련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연다. 구하 경봉 월하 벽안스님의 100년 행장을 중심으로 전문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 등으로 구성된다.<sup>51)</sup>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의 발간 배경, 내용, 성격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 책의 발간을 기념하여 통도사 고승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통도사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한동민(수원박물관

51) 『불교신문』 2010.12.15, 「『통도사 근현대 100년 불교사』 편찬」.

학예팀장)은 구하의 독립운동에 대하여 상세한 연구 결과를 발제하였다. 그 논문은 수정 보완을 거쳐 『대각사상』 15집(2011.6)에 「일제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와 독립운동 자금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되었다. 한동민은 그 논고에서 구하의 독립운동 지원의 내용(일제하 당시 금액, 13,000원)으로 거론된 주장, 내용, 사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독립운동 정황상 틀림 없는 것”으로, “독립운동 관련자 10명에 대한 정확한 기억과 진술의 일관성은 독립운동 자금 지원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단정했다.<sup>52)</sup>

지금까지 구하 독립운동 지원 자기에 대한 개요, 성격, 연구의 시말 등을 정리하였다. 구하의 독립운동 자금 지원의 내용을 진실로 규명하는 작업이 통도사 근현대사 복원의 촉매제로 활용되었음이 주목된다.

## V. 결어

맺는말에서는 구하 독립운동 지원 자료에 담긴 문화, 정신, 역사적 의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이런 도출은 추후 이 방면 연구의 안내 역할로 작용할 것이다.

첫째, 구하가 독립운동을 지원한 자금의 내용(사실)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이제는 그를 증명하였던 문건, 영수증 등은 근대문화재로 등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구하의 독립운동 자료는 불교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한국불교에서의 기록문화의 수준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해방 이후 6·25전쟁, 불교정화운동을 거치면서 불교인들의 기록문화 인식이 변질되었다. 조속히 퇴보·변질된 기록문화 인식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52) 한동민, 「일제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각사상』 15, 2011, pp.57-58.

셋째, 근현대기 고승들의 역사적인 일기, 일지, 편지, 엽서, 메모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헌 기록을 수집, 보관해야 할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아카이브화를 해서 보존하여, 연구하고, 후대에 전승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알기로 구하, 만해, 경봉, 월하, 청담, 동산, 현칙, 문성, 무불 등의 일기가 존재하였다. 조속히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탐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사 사찰의 근현대 불교사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가 요청된다. 통도사는 구하 자료 보존, 활용을 계기로 근현대기 책을 2종이나 발간하였다. 그리고 그 여세로 2020년에는 『신편 통도사 사지』(上·下)를 발간하였다. 통도사 사례를 참고한 여타 본산 사찰에서의 ‘역사찾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구하 독립운동 지원의 자료에 관련된 제반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러면서 추후 그에 연관된 사업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하였다. 이런 정리, 제시가 이 방면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서남현, 『영축 구하대종사 민족운동 사료집』, 통도사, 2008.
- 통도사,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영축총림 통도사, 2010.
- 김광식, 『삼소굴 법향』, 경봉문도회, 2020.
- 김광식, 「만해 한용운과 통도사」, 『불지광조 : 정인스님 정년퇴임기념 논총』, 2017.
- \_\_\_\_\_, 「통도중학교의 민족교육과 폐교사건」,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8권,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9.
- \_\_\_\_\_, 『백초월』, 민족사, 2014.
- 김수하, 「일제강점기 근대한국불교를 위한 김구하의 개혁정신과 방향」, 『문학과 종교』22, 2017.
- 박희승, 「일제강점기 상해임시정부와 이종육의 항일운동 연구」, 『대각사상』 5, 2002.
- 임혜봉, 『친일불교론』, 민족사, 1993.
- \_\_\_\_\_, 『친일승려 108인』, 청년사, 2005.
- 한동민, 「일제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각사상』 15, 2011.
- \_\_\_\_\_, 「일제강점기 신상완의 독립운동」, 『대각사상』 13, 2010.
- 한상길, 「통도사와 표충사의 3·1운동」, 『한국불교학』 89, 2018.



## Abstract

### Overview and Personality of Guha's Independence Movement in Data

Kim, Gwang-sik  
(Professor, Dongguk Univ.)

This review summarizes the contents related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under the high approval of Tongdosa Temple. Guha(九河) is a high priest representing Tongdosa(통도사) Temple in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He also served as the head of the general affairs office, dean of the Central Hakrim, and advisor to the Jogye Order in the Central Buddhist Church. However,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his anti-Japanese and pro-Japanese since the mid-1920s. So, in this article, I tried to summarize the contents of the data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under Gu with the following focus.

First, the outline of the controversy over the pro-Japanese issue of Buddhism in modern Korean history is summarized. So, we looked at the controversy of the related characters. Second, we looked at the data showing the Guha Independence Movement. He is a document written in 1951 and 1952. Third, we looked at the process of popularizing the data of the Guha Independence Movement. In other words, it was noted when, where, and by whom the materials were included in the archives and published in the media. Fourth,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allegation that Guha is pro-Japanese group was examined in detail. Efforts to save Guha from being selected as pro-Japanese group from Tongdosa Temple were summarized.

I hope that this article described as above will be used for modern and

contemporary Tongdosa, the life and independence movement of Guha, and the issues of anti-Japanese and pro-Japanese Buddhism.

Key words

Guha, Tongdosa, Buddhist pro-Japanese, pro-Japanese group, Buddhist anti-Japanese movement, provisional government support, Jogye Order

논문투고일 : '22. 04. 04. 심사완료일 : '22. 05. 25. 게재확정일 : '22. 05. 25.